

# 제조업·비수도권 'AI 시각'...업종·지역별 양극화

### 상의 설문, 대·중소기업 생성형 AI 활용률 격차 13.8%p

### 체계적 전략 수립 등 기업·정부 차원 종합적인 대응 필요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 규모, 업종과 지역에 따른 활용 격차가 뚜렷해지며 산업 전반의 '디지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기업 규모 등에 따른 활용 격차가 구조적 과제로 드러남에 따라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한 AI 활용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구 SCI)은 전국 만 20세 이상 임금근로자 약 3000명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생성형 AI 활용의 대·중소기업 격차: 역량과 조직환경의 역할'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대·중소기업 간 생성형 AI 단순 활용률 격차는 13.8%p(대기업 66.5%, 중소기업 52.7%)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중소기업의 취약한 AI 지원

인프라 실태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기업의 생성형 AI 활용 정책과 업무 환경을 조사한 결과 '생성형 AI 도입 로드맵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이 중소기업은 70.4%에 달하며 대기업의 54.4%를 크게 웃돌았다.

대·중소기업 모두 체계적인 AI 전략 수립이 미흡한 실정이지만 중소기업의 공백이 훨씬 더 두드러진다.

하나 회사 지원 체계나 근로자 개인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 등 다른 요인들을 포함할 경우 기업 규모 자체에 따른 활용률 격차는 4%p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며 조직 차원에서 활용 환경이 조성된다면 중

소기업도 대기업 수준으로 AI를 잘 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업종과 지역별 양극화도 분명했다. 서비스업의 대·중소기업 활용률 격차는 9.2%p인 반면, 제조업 격차는 24.2%p로 2.6배에 달했다.

지역별 중소기업 활용률 역시 수도권(57.3%)이 비수도권(47.8%)을 크게 앞질러 '제조업'과 '지방 중소기업'이 AI 활용의 시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대·중소기업 간 생성형 AI 활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직업훈련 내 AI 특

화 과정 확대, 비수도권과 제조업 등 시각지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체계적 도입 전략 수립을 위한 진단·컨설팅, 표준 로드맵 보급, AI 구동료 및 도구 도입 비용 지원 요건 간소화한 접근성 향상 등을 제안했다. 특히 AI로 단축된 업무 시간이 휴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비즈니스 고도화로 이어지도록 성과 연동형 직무 설계와 사내 노하우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상의는 올해 하반기 출시를 앞둔, 독자 AI 모델 기반으로 전 국민에게 무료 제공되는 정부의 '모두의 AI 프로젝트'가 중소기업 현장에 실질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

도록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생성형 AI로 절감된 시간을 새로운 부가 가치 창출에 재투자하는 방식에서 대·중소기업 간 차이가 관찰되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는 단기적인 AI 활용률 격차가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격차로 누적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AI 격차는 개인의 태도를 넘어 기업의 정책과 지원 같은 조직 환경에서 비롯된다. 중소기업의 도입 여건 조성과 근로자 역량 강화를 아우르는 점교란 제도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여수 신호남 LNG발전소 냉각방식 놓고 '논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인 신호남 LNG복합발전소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발전소가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관류냉각방식' 도입을 검토하면서 어민들과 시민환경단체가 온배수에 따른 해양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며 냉각방식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여수산업단지내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여수시 월내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500MW급 신호남 LNG복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석탄화력발전소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정부 에너지정책 기조에 맞춰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2030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발전소 냉각 방식'이다. 동서발전은 터빈 냉각을 위해 바닷물을 취수한 뒤 사용 후 다시 바다로 방류하는 '관류냉각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발전 과정에서 가열된 온배

### 동서발전, 여수산업 내 500MW급 2030년 준공 목표 추진

### 터빈 '관류냉각방식' 검토에 어민·환경단체 강력 반발

수가 바다로 배출되면서 주변 해역 수온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어민들은 이미 고수온과 적조로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온배수 유입은 여장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수 해역은 지난해 여름 고수온 특보가 장기간 이어지며 양식어류 폐사가 발생했고 적조 피해까지 겹치면서 양식 어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 어민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바다 수온이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 발전소 온배수까지 더해지면 산란장과 서식환경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어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역시 관류냉각방식 대신 '냉각탑'을 활용한 냉각방식 도입이 필

요하다고 주장한다.

냉각탑 방식은 냉각수를 순환시켜 사용하는 구조로 바다로 직접 배출되는 온배수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 있다.

실제 여수산업 내 LNG복합발전소인 여수그린에너지는 냉각탑과 공업용수를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국내 다수의 발전소는 건설·운영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냉각탑 대신 해수를 직접 취수·배출하는 관류냉각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기술적으로 대체 가능한 냉각방식이 존재하는 만큼 비용 문제만 이유로 해수 냉각방식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를 둘러싼 분쟁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의 경우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가 인정돼 법원이 어민들에게 45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경남 통영천연가스발전소 역시 냉각수 배출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한수 여수환경운동연합 의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온배수까지 더해지면 적조와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해양환경과 어업 생계를 고려한 냉각 방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현재 설계기술용역을 진행 중인 단계로 냉각방식을 포함한 주요 설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류냉각방식과 냉각탑 방식 등 특정 방식을 결정한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의견 수렴과 관련 절차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력거래소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광주본부와 10일 전력거래소 이사회 회의실에서 안전문화 확산 및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전력거래소 "안전문화 확산·산업재해 예방"

###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업무협약 체결...협력 체계 마련

전력거래소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광주본부와 10일 전력거래소 이사회 회의실에서 안전문화 확산 및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안전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컨설팅 및 캠페인 공동 실시,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지원, 안전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수요 발굴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관계 시설 등 핵심 국가기반 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 강화와 임직원

및 수급업체 맞춤형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해 재해 없는 일터를 만드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력거래소 김성진 이사장 및 광근열 부이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문석훈 광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체결 후 향후 구체적인 실무 협력 및 가치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토의가 진행됐다.

전력거래소 김성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전력거래소의 안전역량 향상과 지역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전문 기술력과 거래소의 우수한 산업안전 체계가 시너지를 발휘해 지역사회의 산업재해 제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 카카오 노조, 29일 파업 예고...성과급 갈등 격화

### 창사 첫 부분 파업 돌입...노사 갈등 정면 충돌

카카오 노조가 2006년 카카오(카카오 전신 아이위랩)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화학생업식품산업노동조합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10일 오전 10시부 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부분 파업에 참여한 법인은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곳이다.

앞서 해당 법인은 임금 단체협상이 결렬된 후 경기지정노동위원회에서도 조정이 중지돼 쟁의권을 확보,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찬성을 가결했다.

이날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카카오 본사 기준 1000여명, 전체 법인 기준 1500여명으로 파악됐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판교역 광장에서 H스퀘어까지 행진을 진행한 카카오 노조는 "단결 투쟁"이라는 문구가 적힌 검은 티셔츠를 입고 "고용 안정 쟁취", "경영진 퇴진"이라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이어갔다.

노조는 행진 도중 넥센, 엘스엘게임즈, 엔씨, 네오위즈 등 판교 일대 IT기업 사옥 앞을 지나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행진에는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 조합원뿐만 아니라 화성노조 IT위원회 소속인 네이버 등 노조 관계자도 참여했다.

카카오 노사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성과급 등 보상체계 등이 꼽힌다. 본사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

14%를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500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으로 산업 여부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여왔다.

노조는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3~14%에 달하는 약 1000만원 상당의 성과급과 RSU를 성과급에 산입하지 않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조 요구안이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부분파업 시점까지 사측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노조는 오는 29일 '로고프 데이'란 이름으로 그들 법인 5곳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로고프 데이는 전 직원이 업무를 위해 접속한 여러 업무 툴에서 로고프나 로고아웃해서 업무를 하지 않는 방식의 파업을 뜻한다.

카카오지회 관계자는 "고용 불안을 방지하고 성과는 독점하면서 실패의 책임을 나누지 않는 구조가 카카오 공동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더 많은 공동체에서 같은 문제가 일어날 것을 막기 위해 오는 29일에 '로고프 데이'를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 운영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관계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단체행동 기간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최소 대응 인력 등을 구성하는 등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분 파업에 들어간 카카오 노조원들이 10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유스페이스 광장까지 행진하고 있다.

## 현대차, 에픽게임즈 협업...월드컵 게임으로 확장

### 아이오닉 6 N Line 차량 아이템·월드컵 전용 데칼 선보여

현대차는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와 협업해 인기 게임 로켓리그와 포트나이트에서 진행되는 월드컵 연계 게임 이벤트를 통해 전 세계 축구 팬과 게임 유저들을 만났다고 10일 밝혔다.

1999년부터 약 27년간 FIFA 월드컵 후원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차는 이번 협업으로 모빌리티와 스포츠, 게임이라는 각기 다른 영역의 시너지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브랜드 경험을 대중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에픽게임즈와 협업해 11월부터 7월 19일까지 자동차로 플레이하는 다이나믹 축구 게임 로켓리그에서 '아이오닉 6 N Line' 차량 아이템과 월드컵 후원 전용 데칼을 선보인다.

해당 기간 동안 게임 유저는 FIFA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48개국 중 하나를 선택해 국가 대표로 참여할 수 있고, 경기 중 골을 넣을 때마다 해당 국가의 점수가 누적되는 방식으로 경쟁해 최종 누적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가 우승을 차지한다.

또 이벤트 기간 동안 10개의 퀘스트 완료 시 아이오닉 6 N Line 차량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해당 차량으로 8000m 이상 주행 시 현대차 월드컵 후원 전용 데칼이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현대차는 에픽게임즈의 대표 배틀로얄 게임인 포트나이트에서 오는 25일부터 7월 19일까지 주간 단위 미션을 진행하며, 게임 유저들은 다양한 미션을 달성해 게임 내 주요 이동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아이오닉 6 N Line 차량 아이템과 월드컵 후원 전용 데칼을 획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다양한 연령대의 게임 유저들과 소통하고, 게임 마케팅을 통해 미래 잠재 고객과의 접점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와 에픽게임즈는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협업을 이어간다. 현대차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전 거점에 시 월드컵 테마 전시를 운영할 계획이며, 고양 및 부산 지역에는 별도의 게임 체험존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게임 속 아이오닉 6 N Line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